

서구자원봉사센터, '선한 영향력 플랫폼' 비전 선포

동 자원봉사캠프, 생활권 자원봉사 거점으로 새 도약
주민과 지역을 잇는 선한 영향력 확산 본격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선한 영향력 플랫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 서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승휘)가 동 자원봉사캠프를 주민과 지역을 잇는 생활권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선한 영향력 확산에 나선다.

서구는 1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한 영향력 플랫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동 자원봉사캠프를 단순한 봉사활동 조직에서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권 자원봉사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공유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12년부터 동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손쉽게 자원봉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왔다.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주민과 자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권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동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수요 발굴·연계, 주민 주도형 봉사 프로그램 운영, 선한 영향력 실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캠프장 18명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만드는 착한 서구'를 외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에 참가한 한 캠프장은 "주민과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 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

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의 출발점은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라며 "사람을 모으는 것은 투자일 수 있지만 사람을 머물게 하는 힘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승휘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선한 영향력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며 "동 자원봉사캠프가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가 돼 자원봉사가 일상이 되는 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김병내 남구청장, '현장에 답 있다' 민생행보

20일 민선 9기 첫 '민원 현장 확인의 날'
효덕동 등 3곳 방문...현장 민원 점검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청장이 오는 20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민생행보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차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효덕동과 송암동, 대촌동을 방문, 3개 지역 주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민선 9기 구청 운영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 행정'과 '주민 소통 본격화'를 위한 첫 일정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면서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주요 민원 현장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효천2지구 효우로 일원 민원 현장이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난간의 부식 또는 파손으로,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건설과 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송암동에서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됐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 희생자를 기리기 위

한 위령비 건립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한다.

현재 남구는 5·18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민원 현장인 대촌동에서는 화장동 일원 농로 개설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현재 영농 기계 진출입 및 농산물 운반을 위한 농로 개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의 출발점과 답은 언제나 주민이 생활하는 현장에 있다"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행정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민원을 직접 챙기고, 주민

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남구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민원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 신뢰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중수 기자



남구청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